선민 말살정책

(신명기 21:1~23)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2.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3.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4.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5.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6.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7.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뒤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생활 규범에 속한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고 싶을 때에 지켜야 되는 규정, 배 다른 형제들 간의 장자의 상속권 문제, 부모에 거역하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 나무에 달린 주검을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들이 단편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없는 생활 규범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선민이 복지에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결국 말살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므로 <선민 말살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 말살정책’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그 다음 구절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복지도 없고 선민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살’이라는 말의 뜻은 ‘있는 사물을 뭉개어 아주 없애버린다’는 뜻으로 단어 하나만으로도 두렵습니다. 독일 나치의 유대인 말살정책은 600만을 죽였고,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은 황국신민화를 위해서 창씨개명과 신사참배와 황국요배를 강요하고 일장기계양을 강요하고 조선어 사용을 폐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고 내선일체사상을 주입하고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해서 때마다 외우게 했습니다. ‘황국신민서사’는 아이들의 용어로 “1. 우리들은 대 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 3.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일본의 국민이 되겠습니다.”라고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상점, 모든 직장에서 조회나 회합시간에 제창하게 해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말살’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조선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깔끔하게 지워버리려고 했으므로 끊임없이 질기고 강렬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지금도 선민을 향하여, 일본이 조선민족을 향하고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향하여 자행했던 민족말살정책과도 같은 선민말살정책이 편만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민들이 이러한 선민말살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어서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선민을 가려내시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지역교회 내에서도 선민말살정책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선민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한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견하면서 선택하셨고, 주님이 오신 사건을 회상하면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민들 안에서 사탄은 선악과 따먹은 결과를 재활용하면서 선민말살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정작 선민은 저항할 줄도 모르고 선민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서 말살되어 가고 있는데 선민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복지에서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복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유념하라고 하시는데, 선민말살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가 없어지고 선민도 없어진다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선민다움을 없애버린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살인범이 잡히지 않은 살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옛날에 아무도 안 보는 들판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살인범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읍에서 밭일을 하다가 시체를 발견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살인 현장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범이 선민사회에 드러나서 처벌받게 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생각에 맡깁니다.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시려는 메시지는 분명히 살인죄가 사람들이 못 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의 초점은,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 살 때에 이 살인범을 모른 채 살해당한 시체를 발견하게 될 때에, 시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조치법에 맞추고 있습니다.

3~7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송아지의 목을 꺾었다'고 해서 살인범의 살인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한 피가 흐른 성읍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죄한 피'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 정상적인 재판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살인을 당했는데 시체가 놓인 가까운 성읍에서 그 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인 일에 가담한 사람이 없음에도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점에 강조점을 두십니다.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감당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비유하면 옛날에 단독주택에서 살 때에는 간혹 개나 취객들이 대문 앞에다 용변을 보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내 집 앞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내가 치워야 하는데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살해당한 시체를 발견했다'는 것은 어떤 못된 사람이 죄를 싸고 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고 이러한 죄를 싸는 일이 복지 안에 자꾸만 많아지면 책임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므로,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느끼고 죄 사함의 규정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는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지에 죄가 누적되게 되면 결국 복지가 더렵혀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선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면 선민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선민도 없어지게 됩니다. 선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선민의 땅이 유지되려면 영적인 의미에서 죄가 쌓이면 반드시 그것을 치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내가 죽인 시체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엄숙한 절차를 거쳐서 이 죄를 치우고 사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시체'는 살아있던 한 인격체인 사람의 주검입니다. 선민에게 시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의미하는 것은 살아있는 한 사람의 목숨을 끊은 살인의 결과이면서, 그보다 먼저 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짓눌리고 말살된 살의(殺意)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선민들의 삶의 터전인 약속의 땅 복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악한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범죄입니다. 내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선민이 가장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집 대문 앞에 누군가가 용변을 봤다면 심리적으로 힘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하며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살인'이라는 범죄가 지니는 대표성이 있는데 모든 범죄를 대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살인이 무거운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범죄인 가장 큰 이유는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의도를 말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으로부터 살인이라는 범죄 속에 모든 범죄 행위들을 대표하는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한다는 점과,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의도가 남아있고 진행 중인데, 사람이 자기의 의도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모든 범죄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살인과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를 끊임없이 지속하게 됩니다. '살인과 같은 효과'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이 무시무시한 살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혐오하시고 경계하시는 이유가,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고 하나님 의도를 말살하는 것 때문인데, 바로 그렇게 혐오하시고 경계하시는 그 이유를 살인을 안 하는 모든 순간에 일상적으로 무한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메시지는 하나님 의도 죽이기를 살인으로 비유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살인과 같은 무게의 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할 때에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대할 때 사업장에서 일할 때에 살인과 같은 무게의 범죄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으면서, 복지가 말살되고 선민 됨도 말살되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면 내 복지가 죽습니다.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함께 말살 되는 것입

니다. 내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채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고 나타나고 실행되면 복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전쟁터와 같은 절박한 관심거리들 앞에서조차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봄으로서 하나님 의도를 위한 교두보가 되자는 적극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경계를 취하라는 소극적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10~13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시므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 온 여자 중에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하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도록 하고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살라'는 것인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 당시의 통념상 포로는 물건이었고, 그 중에서도 여자는 개인 소유로 더 하찮은 존재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를 위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부모'는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있게 하시려는 의도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모를 통해 하십니다. '부모를 위해 애곡하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그 의도를 존중하라'는 얘깁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하는 뜻으로 '그 여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중에서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는 너무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 여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대할 때라도 그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일과 연관된 상황에서는 복지가 사라지고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지가 말살되고 선민 됨이 말살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배 다른 형제들 간의 장자권의 문제입니다. 15~17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

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라고 하십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스럽고 한 아내는 아주 밉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밉살스러운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아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차남입니다. 이럴 때 인지상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만, 미운 아내의 아들 또한 하나님의 의도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차남을 장자로 세웠다가는 '너희 집안의 복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21절 까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라고 하십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를 온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 선민의 삶의 터전에서는 이런 악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를 죽이라'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자를 살려두는 것은 복지 안에 죄를 싸고 다니는 것을 그대로 용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존중되지 않는 관점에서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그 자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 된다면 그 자식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라고 하십니다. '나무에 걸린 시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정당한 이유로 사형을 당한 자입니다. '이 시체를 하루가 넘게 둠으로 복지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남겨두지 말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3:13절에서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복음으로 적용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

나님의 의도를 말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이 선민 됨을 말살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은 결과를 재활용해서 활성화시킵니다. 끊임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나의 의도를 표출하게 합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도 내 의도를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복지는 깨지게 됩니다.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선민 말살정책이 재활용되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겠다고 쫓아가면서, 내 의도를 표출할 수밖에 없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 죄를 싸는 일이 없어집니다. 내 삶에 내가 죄를 싸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싸면 복지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나만 십자가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시는데,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싸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시는 것이므로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고 살았던 사람들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바깥에 내팽개쳐진 것이고 복지에서 내팽개쳐진 것이고 선민의 경계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처지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루어 놓은 선민 말살정책이 재활용되고 있는 나의 인격이 잠시라도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살정책에 휘말려서 우리의 복지를 우리 스스로 까부셔버리는 일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날마다 선민 말살정책에 저항하시면서 우리의 복지를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선민 말살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나의 인격이 순간순간 나무에 달린 주님과 함께 죽으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지가 유지되고 선민 됨이 유지되는 구원의 삶이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